



# 침팬지와 600가지 수화한다

## 서울에 온 동물학자 '제인 구달'

Science People

“오, 우어, 우어~ 우, 우, 우~.” 반가운 첫 인사를 침팬지 말로 대신한 침팬지 연구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제인 구달(Jane Goodall · 69) 박사는 “환경 파괴가 결국 우리 삶의 파괴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며 “여러분과 나 하나하나가 바뀌어야 사람과 동물, 자연이 조화하는 지속가능한 삶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과학문화재단과 서울대 영장류연구소 초청으로 방한한 세계적인 동물행동학자 구달 박사는 지난 11월 9일 서울 교보문고와 영풍문고에서 자신의 책 ‘제인 구달의 생명사랑 십계명’ 사인회를 가졌으며, 11일 오후 서울대 문화관 대강당에서 ‘침팬지와 나의 삶’이란 주제의 대중강연을 한 후 돌아갔다.

구달 박사는 “침팬지는 500~600 가지 수화를 익혀 사람과 의사소통할 수 있고, 다른 동물들도 적당한 언어만 찾아낸다면 마찬가지로 될 것”이라며 자연과 동물세계를 이해하지 않고 파괴를 일삼는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했다.

또 “객관성만을 강조하는 차가운 과학이 아니라 자연의 마음과 정서를 이해하려는 과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영국 출신인 구달 박사는 26세 때인 1960년부터 탄자니아 곰비 국립공원의 밀림에서 야생 침팬지의 행동과 심리를 그들의 눈으

로 연구해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그는 현재 칠순에 가까운 나이인데도 세계 야생동물과 환경보호 운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유엔 평화대사로 임명됐고, 지난 9월에는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과 함께 세계 평화의 날 행사에 참여했다.

그는 지난 1977년부터 세계 각국에 ‘제인 구달 연구소’를 설립해 영장류 연구와 환경운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 1991년부터 ‘체험과 봉사를 통해 환경·동물·지역사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갖자’는 내용의 환경운동 ‘뿌리와 새싹(Roots & Shoots)’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87개국 6천여 그룹이 활동하고 있다.

영국 왕실은 이런 업적을 평가해 올해 그에게 기사 작위에 해당하는 DBE(Dame of the British Empire)를 수여하기도 했다. 그는 “이라크전과 같은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인터넷 사이트(www.janegoodall.org)를 통해 전세계에서 평화의 비둘기 모형을 만들어 날리는 운동을 전개중”이라고 말했다.

1996년에 이어 두번째인 이번 방한은 한국영장류연구소(소장 최재천 서울대 교수) 설립을 돕고 환경보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이뤄졌다.

## 다음은 제인 구달 박사와의 일문일답.

**연구자·교육자·운동가 등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역할이 가장 중요한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젊은이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어린이와 젊은이에 대한 교육을 통해 환경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추진하는 환경운동을 '뿌리와 새싹(Roots & Shoots)'으로 부른 이유도 뿌리가 단단히 기반을 다지면 새싹이 올라와 벽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의미를 전하기 위해서다.

인간이 만든 모든 환경·사회 문제가 '벽'이라면 어린이들을 통한 '뿌리와 새싹' 운동이 이를 없애고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사람과 동물, 환경, 지역사회를 좀더 좋게 바꿀 수 있도록 운동하고 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왜 정책결정자보다 아이들에게 집중하는가.**

정책결정자도 중요하지만 이미 굳어져 버린 나이든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는 힘들다. 대신 아이들을 통해 그들의 생각을 바꿀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침팬지와 사람이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했나.**

비언어 의사소통에서 가장 유사성이 돋보인다. 침팬지들은 서로 만날 때 껴안고 키스하고 등을 두들긴다. 화나면 주먹을 흔들고, 서로 놀 때는 간지럽히고 웃기도 한다. 난폭하고 잔인한 행동도 있고, 이타적이고 호의적인 행동도 선보인다.

**'실험과 해부' 대신 '관찰과 보호'를 통해 연구해 왔는데 과학에서 실험과 해부는 불가피하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해 연구할 수 있는가.**

과학은 종종 '실험과 해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일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다. 오히려 다른 방법을 통해 해결되는 경우도 많다. 실험과 해부 같은 잔인한 방법 말고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어떤 것을 억제하고 어떤 것을 장려할지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다.

**평생을 야생 침팬지 연구에 매달렸는데, 어떤 면이 잘 되고 잘 안 되는가.**

나는 연구할 때 개인적인 것을 전달하려 하지 않는다. 야생 침팬지의 의사소통 구조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자연계에는 아직 답

이 주어지지 않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들이 적당한 질문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침팬지를 다루면서 과학적·객관적인 관점을 유지하기가 어렵지는 않나.**

정서상 잘 통해도 객관적 연구는 가능하다. 오히려 보다 정확한 연구가 가능하다. 아픈 어미를 관찰할 때 새끼를 보면 가슴이 아프지만 관찰을 방해하지 않는다. 좋은 과학자가 되기 위해 냉정해야 하지만 먼저 제대로 된 인간이 돼야 한다.

**영장류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영장류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투쟁중이다. 영장류도 인간처럼 자유롭게 살 권리, 고통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게 실현된다 해도 얼마나 가치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인간의 권리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다. 지금은 인간의 권리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유엔 평화대사를 맡는 등 환경운동에도 열심이다. 이라크 전쟁을 보면서 느낀 감회는.**

침팬지의 싸움·전쟁은 '영역 확보', 그 안에 있는 '자원의 확보'가 목적이다. 침팬지의 싸움은 시카고 갱단의 활동과 비슷하다. 이라크 전쟁은 돈, 석유 등이 배경이 됐다고 알고 있다. 침팬지는 같은 목적을 갖고 싸우지만 인간은 목적이 각기 다르다는 점이 틀리다.

**경제발전과 환경보호 문제는 첨예한 갈등을 빚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사람들이 좀더 환경·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살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쪽으로 운동할 계획이다. 환경 파괴는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다행히 곳곳에서 사람들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린이와 젊은이들에 하고 싶은 말은.**

개인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깨달아야 한다. 만약 한국의 어린이들을 마주 보면서 얘기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너는 중요한 사람이고,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해 주고 싶다. ⑤D

정리\_ 권영일 과학저널리스트 zeus@scinews.co.kr